

골롬반 선교

2020년 겨울호 vol.117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루카 6,20)

특집

생태적 회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골롬반 선교

2020년 겨울호 vol.117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마음을 여는 글 03 하느님께서 오십니다 안인성 패트릭 신부

생태적 회심 04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과제 백운철 스테파노 신부

07 메리 할머니의 정원 김정혜 로베르타 선교사

10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임영준 에이몬 신부

12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유정원 로사

은경축 14 당신의 빛으로 이찬 빈첸시오 신부

18 평화를 위한 묵상과 기도 함편익 패트릭 신부

선교사의 창 16 안광훈 신부, 한국인 되다 편집실

추모 20 우리의 친구 민수왕 신부님을 떠나보내며

강경수 안드레아

22 오록, 시처럼 아름답게 살다간 선교사

권은정 유스티나 루이제

24 황 페리 신부님, 벌써 너무나 그립습니다

김영우 라이문도

후원회 26

골롬반 소식 28



표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안광훈 로벨도 신부(사진 류어진 작가)

뉴질랜드 출생인 안광훈 신부가 올해 팔순과 사제서품 55주년을 맞았다. 가난하고 힘 없는 이, 정의로운 이들 편에서 평생 함께한 그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9월 20일, 특별 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 (관련 글 16쪽~17쪽)

하느님께서 오십니다



안인성 패트릭 신부
『골롬반선교』 편집장

성탄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놀랍고도 믿기 어려운 주장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이 주장은 다른 종교들과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하느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며, 창조와 더불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 종교의 일반 사고와 논리를 뒤엎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느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별난 마을, 궁전이 아닌 가난한 시골 초가집, 농민들 사이에서 태어나 연약한 아기로서 피조물에 가까이 다가 오셨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아기를 만났던 사람들은 희망과 기쁨을 경험했고, 하느님께 이렇게 찬미하도록 인도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 그런데, 복음서에 드러나 있듯이 이 찬미가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골롬반선교』 겨울호는 교회의 언어로써 새로운 표현인 “생태적 회심(生態的 回心)”의 개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생태적 회심은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며,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방식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216항). 생태적 회심을 위해 “서로 어우러져 관대하고 부드러움이 넘치는 태도”, “감사와 무상성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사랑으

로 창조하시고, 선물하셨기에 우리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포기하고 누가 보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관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220항). 생태적 회심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현대의 새로운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지구촌 생태 위기 앞에서 교황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 달리, 온화하며 인간성에 희망을 두고,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치 목동이 양들에게 노래하고 휘파람 불듯이(요한 10,4) 상쾌하고 새로운 증언으로 보편 교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지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회원 중 세 사제의 삶에서 특별한 순간을 기념합니다. 이찬 빈첸시오 신부와 함편익 패트릭 신부는 은경축을 맞았으며, 팔순을 맞은 안광훈 로벨도 신부는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3개월 동안 회원 세 분께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9월 4일에 민수왕 파트리치오 신부, 10월 23일에 케빈 오록 신부, 11월 9일에는 황 페리 프란치스코 신부가 선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슬프지만,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봉사한 후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낌없는 후원과 보살핌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묵상하는 복된 성탄 보내시고, 새해를 맞으며 새 노래로 하느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과제

백운철 스테파노 신부

천주교서울대교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을
지냈으며,
현재 동 대학에서 성서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는 사회적 피해자 중에서도 교회는 심각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알다시피, 지난 사순시기 내내 전국 성당에서는 신자를 위한 미사가 없었다. 전시에도, 박해 시대에도 미사만큼은 숨어서라도 신자들과 함께 봉헌했는데, 대명천지에 어찌 이런 일이! 코로나19는 화광이의 칼이나 전쟁의 포탄보다 교회에 더욱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성당 문을 다시 열었지만,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참여는 제한되고, 열심이었던 신자들마저 미사 참여 못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현상이 이젠 놀랍지도 않다. 본당 신부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오더라도 미사 참여율은 과거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어떤 이들은 교세의 장기적 하락 추세를 막기 어렵더라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폭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비대면 시대의 소통과 친교

무인화,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과 재택근무, 화상 회의, 모바일 쇼핑 등 비대면 활동 강화로 예상되는 미래사회의 모습이 갑작스레 출현한 코로나로 인하여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과정은 강화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필요하면 오프라인으로 만나지만, 온라인 소통을 더욱 선호한다. 이제는 장년층뿐 아니라 노인층에까지 온라인 소통 방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사회 전반에 온라인의 영역이 점차 늘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와 사목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인격적 만남을 기본으로 하는 대면 공동체다. 교회는 그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온라인상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 만난 동창 신부에 관한 이야기다. 서울대교구 문래동성당 조용국 신부는 본당 모든 신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주일미사 강론과 묵상을 미리 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당 신부의 메시지를 단지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자들의 댓글이 단문이나 장문 형식으로 많이 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조 신부는 150여 명 신자가 참여하는 여러 개 단체채팅창을 통하여 묵상과 강론 피드백을 받고 있다. 이 채팅창은 일방적 알림 마당이 아니라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묵상과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다.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신자들과 소통하려는 코로나 시대의 아름다운 사목적 사례라고 하겠다. 비대면성이 확대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사목 활동을 펼쳐 가야 할까? 신자들이 함께하는 소통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교회란 무엇이고 누가 교회의 중심인가? 코로나 시대 위기 속에서 하느님 백성 간 소통과 친교를 위해 사목하는 이들의 열정과 의지가 무엇보다 요청된다고 하겠다.

생태적 회심과 영성

코로나19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파괴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반격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학자인 프랑스 예수회 가엘 지로(Gaël Giraud) 신부는 산림이 더 파괴된다면, 인간은 동물과 접촉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로 촉발된 빙하와 만년설의 해빙은 1918년 발생한 스페인 독감이

나 탄저병 같은 위험한 전염병이 확산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올해 8월 20일~25일, 전국 만 14~69세 국민 1,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코로나19와 기후 문제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잘 드러낸다.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66.7%가 '매우 혹은 대체로 동의한다'고 했으며, 응답자 약 96%는 최근 코로나19와 폭염, 폭우 등을 겪으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매우 그렇다' 59.6%, '약간 그렇다' 36.2%)고 답했다. 응답자 대다수(91%)는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그만두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는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하면 2040년께 지구 평균온도에서 1.5도, 2060년께는 2도를 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농산물 생산량은 절반이나 감소하고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기며 지구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세계는

사진: 바티칸뉴스



2020년 겨울호



3월 27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 내리는 텅 빈 베드로 광장에 홀로 서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였다.
출처: 바티칸뉴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
출처: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메리 할머니의 정원

김정혜 로베르타 선교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2004년부터 11년간
일본에서 선교한 후, 한국지부에서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2020년 초, 영국으로 파견되었다.

이미 1.5도를 넘을 수 있는 온실가스를 거의 다 배출했기에 기후 위기를 피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기에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최근에 많은 국가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삼고 이를 수소에너지로 대체하는 수소 경제로의 방향 전환을 선언한 것은 만시지탄의 일이지만, 그만큼 절실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는 근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올바른 시각을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대인은 자연과 연대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자연의 신비를 느끼는 데 둔감하다. 자연을 단지 놀이나 착취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자연을 즐기는 것과 자연과 연대성을 느끼며 사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자연을 욕망 충족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후자는 자연을 내 몸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태도이다.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고 대상화되는 과정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인간이 진리의 근거와 기준을 자신의 의식 안에서 찾으려는 데카르트의 성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후 서구 근대 철학은 육체와 분리된 정신주의, 자연과 분리된 인간중심주의로 발전하였다. 또한 인간 정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는 물질주의로 귀결되었다. 아울러 인간 지성은 과학을 발전시켰고 그것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면

서 기술은 소비를 자극하고 확대했다. 무분별한 개발과 과소비가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라는 생태계 위기를 가져왔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세계적인 생태적 회심을 요구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오늘날 세계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생태적 회심의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다. 성서는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느님 친히 창조와 구원 역사에 개입하시어 피조물 전체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 거대한 창조와 구원 역사 안에서 위대한 생태신학자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신부는 지질학적으로 6천5백만 년 동안 계속된 신생대(Cenozoic)가 끝나가고 또 다른 시대, 즉 그가 생태대(Ecozoic)라고 부르는 시대로 옮겨 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 인간은 이 우주 속에서 만물과 친척 관계로 얽여 있다. 삼라만상과 연결된 우주적 연대성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은 이 시대에 요구되는 영성이다. 그리하여 코로나 시대 한복판에서 교회 공동체는 지구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궁극적인 신성神聖 공동체(The ultimate sacred community)의 중심에 서서 생태 영성과 생태적 회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

2020년 2월, 마스크와 손 소독제로 중무장하고 인천공항을 떠나 도착한 영국 버밍햄은 아직 천진난만한 아이 같았다. 공항에서조차 두세 명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뿐 긴장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3월 들어서면서 영국 상황도 급변하더니 결국, 내가 있는 잉글랜드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졌고, 언제 끝날지 모를 봉쇄 기간을 시작하였다.

필수품 구매, 1일 1회 산책으로 그나마 외출이 가능했기에 낯선 지역과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지만, 영화 속에서나 봤던 두렵도록 적막한 날들이었다.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것은 새벽부터 끊이지 않는 고운 새소리였다. 그 소리에 끌려 일어나 흰 구름 넘나드는 새들을 따라 집을 나서면, 다채로운 꽃과 잎 무성한 키 큰 나무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청량한 개울물, 호수를 차며 날아오르는 거위의 커다란 날갯짓을 보며 자연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새들이 얼마나 신중히 나뭇가지를 골라 둥지를 짓는지, 비바람을 어떻게 견뎌내며 알을 품는지, 다른 새들을 경계할 때와 새끼를 부르는 소리는 어떻게 다른지, 꽃잎의 고운 색깔은 어떻게 변하는지, 새와 곤충과 꽃들이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는지... 멈춰 서버린 인간 세상과 달리 자연은



메리 할머니 정원에서

보란 듯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성서 속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처럼 지친 어깨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연은 소리 없이 받아주며 위안과 평화, 생명력을 전해주고 있었다.

무겁고 적막하기만 하던 도시에는 점차 곤충의 날개 부딪치는 소리, 다양한 새의 지저귐, 풍성한 꽃향

기, 햇살에 말간 잎맥까지 드러나는 나뭇잎, 멋진 색을 하늘에 뿌리며 넘어가는 석양, 고요한 거리에 어김없이 나오는 달 등이 이웃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긴장감 역력하던 사람들 표정은 등지 밖으로 뻗어 나옴에 따라 서서히 부드러워져 갔다. 후드득 떨어지는 빗줄기에 큰 체리 열매에도 놀란 표정을 서로 나누며, 질푸른 나무 그늘을 걷는 상대방에게 안부를 묻는 여유도 보이고 있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하나 둘 보이더니 자전거 수리점, 판매점은 가장 바쁜 곳이



‘로빈’이라고 불리는 지빠귀과의 티티새. 가시관 쓰신 예수님 이마에 박힌 가시를 뽑아드리려다 자신이 찢려 가슴이 피로 물들게 되었다는 이야기 속 새이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되었다. 이는 바이러스에 덜 노출되는 이유도 있지만 자연을 이웃으로 맞이하며 보이는 예우이기도 했다.

7월 초 봉쇄령이 완화될 무렵, 드디어 내게도 자전거가 도착했고 세상으로 통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 덕분에 현재 다양한 ‘커뮤니티 가든(모두에게 열린 정원)’으로 특히, 심신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원예 프로그램 운영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연히 알게 된 홀로 계신 90세의 메리(가명) 할머니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정원 손질도 도와드리고 있다. 메리 할

머니의 정원을 처음 방문한 날, 폭풍이 지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정원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지난봄 잡초에 미끄러져 넘어진 후부터 나와보지 않는다”라면서 “보잘것없는 정원”이라며 말끝을 흐렸지만, 담벼락의 장미는 당신 아버지가 심어 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은 마치 영국의 잿빛 하늘같이 들렸다. 그 너머에 햇살을 품은 영국의 하늘, 비 오는 날에도 갑자기 맑은 날을 만날 수 있고 뜻하지 않은 무지개도 만날 수 있는 그 하늘.

다음 날, 나는 넘어진 채 덩굴된 화분들을 손보고, 나뭇잎과 가지를 쓸어 담고, 깨진 병 조각과 조명등을 주웠다. 정원이 어느덧 제 모습을 드러냈다. 할머니가 무심코 던진 말을 받아 한구석에 있던 검은 비닐을 걷어내자 멋진 테이블과 의자가 드러났고, 파라솔마저 꺼내 끼우니 할머니는 탄성을 올리며 기뻐하셨다. 그 날 이후 내가 정원을 돌보는 동안 메리 할머니는 이런 저런 이야기꽃을 피우신다. 그동안 망가진 정원을 내려다보던 할머니 마음이 어떠했을까 싶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이웃 사람이 장미를 좋아하니 그 집으로도

장미 만발한 가지를 넘기고, 덩굴은 동서로 뻗어나가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내가 가서 무성한 장미 덩굴을 군데군데 묶고 있으니 지켜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울먹이셨다. 내가 와서 할머니 삶에 빛을 밝혀주었다며 2층에서 바라보는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미를 보며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지 말씀하셨다. 알고 보니 이전에 정원 일 해주던 사람이, 장미를 동서로 뻗어가게 하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언니가 심은 화분 속 나무도 옮겨 심어 달라던 할머니의 바람과 달리 장미를 싹둑 싹둑 잘라 버렸고, 나무는 작은 화분에 갇힌 채 폭풍에 쓰러져 덩굴고 있었던 것이다. 몸이 불편하여 대부분 시간을 2층에서 보내며 정원을 내려다보아야 했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느님 마음을 떠올렸다. 메리 할머니의 희망을 저버린 정원사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희망을 무시하고 우리 욕심대로 더 높이, 더 멀리, 더 많이, 더, 더...를 외치며 이 세상의 정원을 망쳐왔고 하느님은 그런 정원을 묵묵히 내려다 보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자연을 바꾸고 생명마저 마음대로 다루다가 새, 닭, 돼지, 소 등이 병들게 되었을 때도 울부짖는 그들을 땅속에 산 채로 묻어 버

렸다. 그 누구도 처리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원자력 발전의 쓰레기를 그저 지구 깊숙이 차곡차곡 묻기만 할 뿐 위험한 쓰레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온난화로 못 생명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어도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더 편하게 잘살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 이전의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것을 얘기한다. 지금껏 그러했듯이 ‘이전의 삶’ 그대로 ‘이웃’인 ‘자연’을 식민화하고 노예처럼 착취했던 그 생활로, 아무 반성이나 돌아봄 없이...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욕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갈라 5,13)라는 사도 바오로의 말처럼 이제야말로 ‘서로를 섬기는 자유’를 실천하는 삶으로 전환할 때이다.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며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하느님 뜻을 살피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꿈꾸고 선택할 때이다. 가시에 찢리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이웃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때, 모든 생명이 함께 향기로운 장미를 즐길 수 있으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 출처: 픽사베이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임영준 에이몬 신부 / 번역·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장이다.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1993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그해 한국에 왔다. 런던대학교에서 불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종교 간 대화' 활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도 잊기 쉬운 삶의 원리 하나를 부각시켜 주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호 연결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차원에서 보자면 광화문광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목포에 사는 누군가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국제 차원에서는 코로나가 국가 간 경계선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는 모두가, 그리고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순전히 사적인 것은 없으며 늘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실로 무서움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현대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뿐 아니라 빈곤, 불평등, 인종 차별 등등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 중 역사상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적 고난입니다. 이 문제가 제기하는 중대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를 가진 우리가 이렇게 상호연결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생각해 볼 만한 좀 더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소비지상주의가 야기한 악영향을 의식한다면 내 자식, 내 손주가 높은 봉급을 받는 일자리를 구해 그들이 꿈에 그리

던 큰 자동차나 최신 전자제품을 사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성지순례를 한다는 명목으로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돌아다니며 거대한 탄소 발자국을 남겨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원인이 되어 기후변화가 일어나 세상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소비지상주의와 한정 없는 비행기 여행이 더 이상 적절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 공동의 보금자리이며, 다양성과 아름다움이 깃든 축복 받은 곳입니다. 다양성과 아름다움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속신앙부터 불교, 그리스도교, 시크교, 이슬람교, 유대교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축복 받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 다양성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각자의 종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꽃들이 가득 피어 빨강, 초록, 노랑, 보라로 물든 정원에 앉아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꽃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비교해 가며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모습에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꽃들의 다양성을 즐기게 되겠죠. 종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가지 꽃만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울 수 없듯이 어떤 종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종교적 전통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종교는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는 그리스도교와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교에는 무속신앙과 다른 도덕적 원칙들이 존재하며 샤머니즘은 유대교와 다른 기도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사이에 공통점도 있지만 결정적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름으로 가득하면서도 상호연결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지만, 똑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상호연결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에 몰두한다면 우리는 삶을 좀 더 만끽할 뿐만 아니라 더 생기 넘치고 다채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 인류가 마주한 최대 난제, 기후변화! 과학만이, 정부만이, 개인만이, 더구나 특정 종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병든 세상을 함께 치유해 나가기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

유정원 로사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다종교 사회와 생태 위기 시대의 그리스도 이해」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가톨릭대학교에서 세계종교이해, 비교종교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성서에 담긴 생태영성'을 강의할 때

“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가
우리에게 울부짖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녀에게 입힌
상처(의 고통)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녀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무책임하게 사용하며
남용하고 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종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2015) 중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라는 말을 한때의 유행어쯤으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TV 화면이나 신문 기사나 환경 다큐멘터리를 통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염된 바다와 땅에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뉴스를 그저 남들의 이야기로만 듣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전 세계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앞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쯤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성당 출입이 제한되고 음식점들이 문을 닫고, 결혼식을 미루거나 장례식을 간소화하는 등 생활방식을 수정하고 인간관계와 만남조차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몰상식하고 민폐를 끼치는 불순분자가 되었고,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집 안에 머물며 택배를 자주 이용하다 보니 포장 쓰레기가 폭증하고, 이태션 안 되겠다 싶어 휴대용 장바구니를 두 개씩 챙겨 시장을 보아도 모든 물품이 비닐과 플라스틱에 담겨 있기에 씹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는 줄어들 줄 모릅니다.

우리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이고, 최근 5억 년 동안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다섯 번째 멸종은 6,500만 년 전이었고, 이때 공룡과 더불어 해양생물(동물군 16%, 식물군 47%)과 육상 척추동물 18%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생태 위기 상황을 맞은 오늘날, 여섯 번째 대멸종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떠돌고 있습니다.

5년 전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가 울부짖고 있으며, 파괴와 훼손을 그대로 두어선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욕심껏 소비하려 하고 편리하게 살고 싶어서 지구의 산과 강, 대지와 바다를 쓰레기와 악취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원인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의 배 속을 갈라보니 플라스틱과 비닐이 들어있고, 드디어 이제는 인간도 1주일에 신용카드 1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그거 아세요? 이번 주에도 신용카드 한 장을 드셨습니다” 경향신문 2020.10.16.).

이대로 가면 우리 인간 생명과 역사는 곧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종이기 때문입니다. 옛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 하신 지구가 울부짖고 다른 생물들이 죽어가는 지금, 우리 인간 역시 깊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치료법을 우리 자신이 알고 있다고, 프란치스코 교종은 선포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더 적은 것

이 더 많은 것”이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가난한 이들 것을 빼앗는 것”이라는 생태적 회심이 첫 번째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치료법은 지구와 우리 자신이 건강한 생명의 순환을 잃지 않도록 매일매일 생태적인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새 물건을 살 때는 정말 필요한지 고민하고, 쓰레기를 버릴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등등. 이런 작은 실천을 어여쁘게 보시고, 하느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

그림: 안재선 제이슨 신부
우리 일상 안에 스며든 소비지상주의, 자본 만능주의로 인해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사진 출처: Veeterzy.com

당신의 빛으로

이찬 빈첸시오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995년 11월 사제수품. 일본에서 선교했고, 한국지부에서 골롬반선교센터·잡지편집실 담당으로 일했다. 심리학 박사이며, 현재 다솜심리상담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마르 9,2~3).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과거 상처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혹은 초등학교 시절에 겪은 어려움이 평생 뇌리에 박혀 있고, 그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의 힘을 빌리자고 권유하면서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선, 어릴 때 상처받은 자신을 의자에 앉혀 놓고 현재의 나는 그 옆에 섭니다. 그런 다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처럼 하얗게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께 어릴 적 자신의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서서히 그분의 빛으로 물들어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나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안수가 끝나면 예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이 기도를 자주 바치고 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저 자신도 어릴 적에 힘든

일이 꽤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좀 더 치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아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수원가톨릭대학교에서 1학년에게 심리학, 3학년에게 종교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귀한 자리를 얻게 된 것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니 꽤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신학생들이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느님 능력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훗날 사제가 되어서는 신자들 마음을 보살필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데 저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신학생을 가르치면서 제 모습을 되돌아보는 때가 많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완벽함을 좋아했기에 쉽게 타인을 비난하며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꺼리고, 스스로 세운 규칙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지나치게 비난하며 죄책감에 휩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이어놓은 듯하여 내 모습이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느님께서 저를 좋게 쓰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온 길이었습니

다. 저의 외국 생활은 신학생 때 아일랜드에서 시작했습니다. 무척 멋진 그곳 풍경에 반했습니다. 아일랜드 신학원 제 방 창문을 열면 보이는 그림에서나 보던 양들과 푸른 잔디, 멋진 학교와 성당 건물 등 신기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영어를 배우느라, 또 신학 공부를 영어로 하느라 지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골롬반회에 입회할 때 대만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왜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매우 끌렸습니다. 아마 첫사랑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서품을 받고 저는 일본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일본으로 파견되어 좋은 친구를 많이 사귀고, 훌륭한 신자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이찬 신부는 매년 해외선교사 파견 교육에서 '심리학 관점에서 본 해외선교지 적응 및 자기 이해' 강의를 하고 있다.

런 감사함을 지닌 채, 당시 평화신문에 칼럼을 썼는데 일본에 대해 너무 좋게 써서 한국 신자들이 불편해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본당에서 일할 때는 우리말이 잘 안되어 교포니, 일본사람이니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는 선교사들이 흔히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어서 상담을 배우고, 심리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요즘은 상담과 교육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비난이 심했던 저를 눈부시게 새하얀 당신의 빛을 비추어 치유해 주시고, 사제 생활 25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제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내려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가족, 후원회원,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

안광훈 신부, 한국인 되다

안광훈 로벨도 신부 / 인터뷰·정리 편집실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965년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파견되었다. 원주교구, 서울대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했고, 골롬반회 초대 신학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삼양주민연대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2020년 9월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삼양동 지역 주민으로 사신 지 오래되셨지요?

한국에 온 지 55년 되었는데 그 절반을 삼양동에서 살았네요. 저는 목동성당 주임신부로 일하면서 재개발과 철거 문제를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었고, 도시 빈민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어요. 골롬반회 신학원장 임기 마치고, 안식년 보낸 다음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가 1992년이었습니다. 故 김수환 추기경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이기우 신부가 지금 서울 삼양동에서 혼자 활동하고 있으니, 안 신부가 같이 살면 좋겠다” 하시면서 저를 파견하셨습니다.

제가 삼양동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어요. 세입자들은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야 했으니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지요. 이 지역 일대가 동시에 재개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동네마다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서로 연대하고 도와주면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IMF 이후에는 실업과 주거 불안 등 또 다른 형태의 가난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함께 실업자들을 위한 사업단을 만들었고, 일자리 창출, 직업 기술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북지역자활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행복한돌봄협동조합, 한바가지소액대출은행, 사회적경제통합지원단 등도 만들었고요.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자립”,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었고, 이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이름을 삼양주민연대로 바꾸고,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우리 동네를 더 좋게 만들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시의 용역을 받아서 수유1동 마을 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재생”은 재개발과 분명히 달라요.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보다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대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삼양동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삼양동 선교본당에서도 사목을 하셨지요?

정진석 추기경께서 서울에 5개 선교본당을 설립했어요. 당시에 예수회 신부님, 서울 교구 신부님 세 명, 그리고 저, 이렇게 다섯이 일했어요. 저는 삼양동 선교본당인 “솔샘 공동체”에서 1대, 4대 주임을 했어요. 우리 선교본당 신부들은 자가용 갖지 않고, 식복사와 직원 없이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지역 사람들 사는 수준만큼 살자고 결정했어요. 교구에서는 그 지역에 주택 한 채만 사주었어요. 큰 방은 미사 드리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그 옆방은 신부가 생활했습니다. 선교본당은 무엇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신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신자들을 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의미에서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은사로서, 선배로서 후배 선교사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외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에게 강의할 때마다 저는 이 점을 꼭 말합니다. “나갈 때 보따리 속에 한국 문화 넣지 말고, 다 꺼내 놓고 가시라!” 먼저 선교지 문화를 배우면 됩니다. 한국에는 없는 새로운 가치관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10년 20년 살면서, 한국의 좋은 문화와 그곳 문화를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당신도 우리처럼 해야 한다고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외방선교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파견된 나라에서 기쁜 마음으로 웃고 살 수 있다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여러 교구와 기관에서 활동하면서 느끼셨던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을 듣고 싶습니다.

박해가 끝난 후, 20세기 들어와서 한국교회는 자유롭게 성당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거의 7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신앙 생활하도록 돕는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70년대 즈음해 교회는 사회 문제,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주교구에 있을 때 故 지학순 주교님께서 구속되자 교구 사제뿐 아니라 신자들도 일어났어요. 故 김수환 추기경님, 故 김재덕 주교님, 두봉 주교님 등 여러 주교들은 성당 안에서 미사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지요. 그런데 교회가 다시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한, 교황님도 말씀하셨듯이 성직주의, 권위주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평신도는 기도만 하고, 돈만 내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박해받은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복음에 따라 살게 되면, 사회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받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의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올해 대한민국 국적도 받으셨고, 여든이 되셨기 때문에 지나온 삶을 돌아보실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20대 뉴질랜드 청년을 부르셔서 한국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까요. 친절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과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사목했던 강원도 정선, 서울 목동에 제 마음의 반을 두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양동에서도 지역 주민으로서 동네 이웃으로서 살고 있으니,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좀 더 인간다운 사회, 기쁜 사회, 평등한 사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평화를 위한 묵상과 기도

합편의 패트릭 신부 / 번역·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아일랜드 출생으로 1995년 사제품을 받았다. 1996년 한국에 파견되어 서울대교구 오류동본당 보좌에 이어, 수원교구 안산 외국인노동자 사목을 했고, 골롬반회 신학원 부원장으로 일했다. 현재 JPIC(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톨릭기후행동'과 함께 피켓팅을 하는 합 패트릭 신부
뜻말에는 찬미받으소서 49항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은경축 기념 해는 지난 25년 선교 여정을 되돌아보고, 제 삶의 일부였던 많은 사람을 기억하며, 그 특별한 기쁨과 슬픔의 순간을 되새기는 기회입니다. 저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는 골롬반회 동료, 후원자, 그리고 사목에 함께하는 많은 동지에게 늘 깊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보여준 사랑과 본보기가 한국에서 선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영감과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제서품 25주년이었던 올해 2월 11일을 운 중계도 고향 아일랜드에서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 2월 11일은 루르드 성모 발현 기념일이자 세계 병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앓거나 애석하게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병자들을 돌보기 위해 너무나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골롬반 선교사들은 선교 소명의 일환인 평화중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각자의 헌신에 따라 '그리스도의 평화' Pax Christi 국제위원회 프로젝트인

가톨릭 비폭력 운동(Catholic Nonviolence Initiative, CNI)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분투하는 많은 사람과 함께 비폭력의 힘을 고취하고자 노력합니다.

"피조물을 향한 폭력을 멈춘다면 대자연은 경이로운 관용을 베풀어 살아있는 모든 생물에게 쉼터, 식

량, 물과 산소를 제공해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이 번성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게 해줄 것이다." 제가 최근에 본 현수막 내용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더 이상 폭력이나 비폭력이나 선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격변, 생물 다양성 상실, 핵전쟁 위험 등이 고조된 이 절박한 시기에는 "비폭력이나 아니면 비존재냐"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선택지 중 어느 쪽을 고를지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최근 제주 강정마을에 가서 평화 중재자들과 함께 강정의 생물 보호와 평화를 기원하는 '새벽 100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제주도의 무장화와 환경 파괴에 맞서 비폭력적 저항에 임하겠다는 엄숙한 맹세이자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100배를 하는 동안 제 무릎은 뼈저린 거리고 아팠지만, 전쟁 준비는 안 된다는 참가자들의 외침을 느낄 때마다 저는 다시 활력을 얻었습니다. 강정 평화 공동체는 그들이 가진 전 지구적인 인식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마을에 해군 기지라는 흉물이 들어선 것에 애통해하며 다국적 해군 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 2020)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올해 하와이에서 열렸던 이 전쟁 훈련에 한국 포함 10개국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해군 훈련은 해양 생물에 막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하지만, 전쟁 준비 축소를 요구하는 수많은 이들의 바람에도 이러한 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무력 중강과 전쟁 준비를 줄여나가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안타깝게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세계 각지 사람들은 전쟁을 당장 멈추고 평화조약을 맺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휴전과 분리된 체제는 분단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안겨 주고, 세계에서 가장 무장을 많이 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자 국제 핵무기 경쟁을 부추기는 지역으

로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늘상 전쟁과 파멸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으며, 군사 훈련에 끊임없이 동원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바이러스로 그나마 나타난 긍정적 효과라면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조금 수그러들고 연례 훈련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인용구를 하나 더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구에 성공한 사람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 지구에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은 평화를 만들고 지켜가며, 치유하고, 복원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각양각색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골롬반 선교사로 살면서, 평화의 일꾼들과 함께 일하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마태 5.9). ✠





우리의 친구 민수왕 신부님을 떠나보내며

강경수 안드레아

제주도에서 활동했던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학생 시절부터 깊은 우정을 이어왔다. 민수왕 신부와 제주 모슬포성당에서 인연을 맺고 오랜 친구가 되었다.



필자 강경수 안드레아

초여름 어느 날 오후, 서울 돈암동 골롬반 본부 정원 벤치에 앉아 신부님과 단둘이서 지병과 삶에 관해 오랜 시간 담소(필자 역시 환자임)를 나누었다. 수술받기 위해 체력 단련에 노력하시던 신부님의 강한 의지는 지병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은평성모병원에서 선종하셨다는 소식을 9월 4일 밤에 받았다. 멍하니 벽에 걸려 있는 십자고상을 쳐다보니 말문이 막힌다. 100세 시대를 거론하는 지금, 우리는 신앙의 큰 별 하나를

너무 일찍 잃었다. 너무나 슬프고 이 애통함에 가슴이 저린다.

신부님은 1944년 아일랜드 케리 주 당글(편집자 주: 아일랜드 서남쪽) 작은 어촌에서 출생하였는데, 소년 시절부터 성소를 느끼고, 뜻한 바 있어 1967년에 서품을 받으셨다. 이듬해인 68년 어려운 시기에 한국으로 와서 선교를 시작하셨다. 연세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 수학을 한 후 인천교구 부천 소사, 광주대교구 흑산도, 전남 영산포에서 보좌를 그리고 전남 영광본당 주임 신부를 끝으로 1978년에 제주교구로 부임하셨다.

제주교구에서 사목할 때 신부님은 발길 닿는 곳마다 신자들에게서 인기가 대단했다. 젊은 미모에 매끄러운 한국어 실력, 미사 강론 때마다 가슴에 와닿는 강론 등 신부님의 재능은 헤아릴 수 없었다. 첫 임지는 모슬포성당. 당시 본당은 재정이 너무 어려웠고 NCWC(가톨릭구제회)의 원조도 단절돼 신자 수가 많이 줄었고 모든 게 어려웠다. 그러한 가운데 76년에는 여름 태풍에 종탑이 날아가고, 77년 1월 초에는 성당에 화재 사고가 있었다. 목조 성당이라 전소됐을 사고가 여러 번, 본당이 공소가 되느냐 하는 기로의 시기였다.

이러한 때, 민수왕 신부님은 모슬포에 부임하여 본당 자립과 수녀원 신축을 목표로 설정하시고 청년회 활성화에도 주안을 두고 사목에 임하셨다. 재임 동안 신부님은 동분서주하며 수녀원을 완공하고 축성식을 교구장 박정일 주교님 집전으로 성대히 치렀다. 10인조 '브라스 하모니'를 초청해 축성 미사에 연주할 정도였다. 상상하지 못할 큰 미사 의전을 민 신부님은 직접 주도하셨다. 영광본당 재임 시절 나환자 갱신 사업인 "영민농원"을 설립하고 운영했던 민수왕 신부님에게서 이와 같은 강한 추진력을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영광 "영민농원" 회원들이 모슬포성당을 방문하여 신부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목격하며 큰 감동을 받았다.

신부님은 당신 부친 임종 때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본당에서 연미사로 조의를 표하셨다. 어느새 모슬포 본당 임기를 마무리할 즈음에는 세례받은 신자 수가 많이 늘었고 또한, 쉬는 교우들도 많은 분이 돌아와 신부님과 함께하였다. 덩달아 주일 헌금과 교무금도 상상외로 많아져 자립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으니 기쁨으로 본당 4년 임기를 마무리하셨다. 휴가를 맞아 고향으로 가실 때, 공항 가는 길을 승용차로 모신 적이 있다. 배웅 차 동승하신 故 원요한 신부님(골롬반회)께서 어려운 곳에 부임하여 무사히 사목을 잘했다고 칭찬과 격려 말씀으로 위로하시자 민 신부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백미러로 보고 사제들 세계의 진정한 사랑의 의를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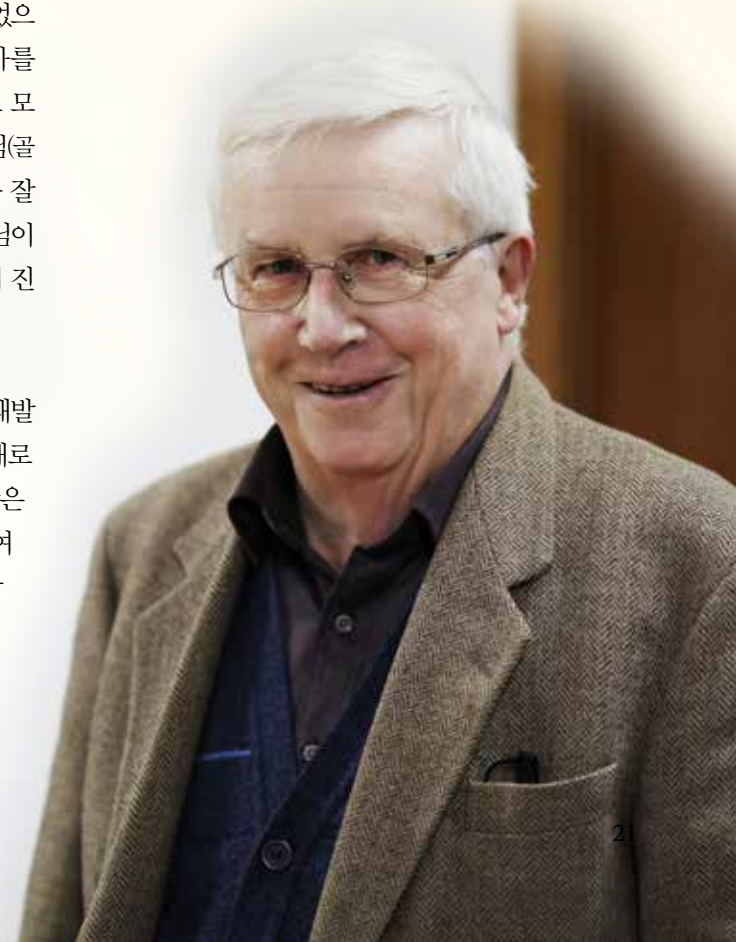
민수왕 신부님은 휴가를 마치고 제주교구로 재발령을 받았고, 서문성당에 부임하셨다가 1년 후 새로 분할된 신제주성당으로 이동하셨다. 신제주본당은 신설이라 사제관이 없어 임시 거처에 계셨는데 한여름에 땀띠로 고생하며 사목에 임하셨다. 신설 본당의 성전 신축에도 신부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고, 서문본당에 다시 돌아와 두 분 사제의 서품식과 성당 이전 신축에 많은 기여를 하셨다. 1988년

세계성체대회를 앞두고는 제주 용두암 골롬반회관 노후로 인한 개보수에도 힘쓰셨으니 신부님 손길 안 간 곳이 없다. 신부님 모친께서 돌아가시어 고향으로 갈 때는 신부님 건강에 이상이 있어 필자가 동행하였는데, 그 시기부터 심장병이란 지병을 얻고 고통의 길에 계셨다.

1970년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파견되어, 한국인들과 주님의 뜻을 나누기 위해 일생을 헌신하셨다. 선종하신 지 49일이 됐는데도 코로나로 고향의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미사도 못 드렸고, 영원한 안식처에도 안장 못 해 드렸으니... 파란 가을 하늘 우러러 쳐다보며 그리운 신부님을 위해 기도한다.

필자가 모신 49제상 파제를 하면서 사랑하는 안드레아가. ✠

故 민수왕 파트리치오 신부
(1944. 3. 9. ~ 2020. 9. 4.)





오록, 시처럼 아름답게 살다간 선교사

권은정 유스티나 루이제

골롬반선교센터에서 개설한 케빈 오록 신부의 영시 강좌에서 첫 수업부터 마지막 수업까지 함께했던 수강생이며 골롬반회 후원회원이다. 전문 인터뷰어이자 번역가이며, 다양한 매체에 오록 신부에 관한 글을 기고하여 일반 대중에게 여러 차례 소개한 바 있다.



故 케빈 오록 신부와 필자
(1939.11.14.~2020.10.23.)

“나는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다. 내가 틀렸다.”

영국 시인 W.H 오든의 시 <장례 비가>의 한 구절이다. 언젠가 신부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시다. 우리 영시반 팀원들도 오록 신부님의 영시 수업이 한결같이 이어질 줄 알았다. 우리가 틀렸다. 케빈 오록 신부님은 80세를 일기로 2020년 10월 23일 하느님 품으로 떠나셨다. 이제 우리 곁에는 시를 가르쳐 주실 신부님이 안 계신다.

2008년 가을 학기에 서울 돈암동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시작한 오록 신부님의 영시 강의는 점점 많은 수강생이 모여드는 인기 강좌가 되어 지난해 2019년 가을까지 계속되었다. 매년 두 학기씩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10여 년 긴 세월 동안 신부님께 영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었다.

1964년 스물넷 청년 사제로 아일랜드를 떠나 한국으로 파견된 오록 신부님은 선교지에서의 사명을 좀 색다르게 시작하였다. 선교지에서 “가르치는” 선교사가 아니라, 이곳을 “배우는” 선교사가 되기로 한 것이다. 첫 사목지인 춘천 소양로성당에서 짧은 보좌신부 생활을 마치고 곧장 서울로 올라와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한국 문학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여 외국인으로서 국문학 박사 1호가 되었다. 평생을 영문학 교수로 지냈지만, 그분은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헌신한 아주 특출한 한국문학 번역가였다. 그분 업적을 말하기에는 어떤 지면도 모자랄 것이다.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비롯하여 손꼽히는 한국 현대소설을 영어로 옮기기 시작한 오록 신부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 한시로 옮겨 갔다. 신라 향가, 고려 가

요, 조선 시대 한시 수천 편을 영어로 옮기는 일을 평생토록 하셨다. 신부님의 번역 시집이 전 세계 우수 출판사에서 발표되었다. 이규보, 윤선도, 김삿갓, 의상대사, 정철, 김시습, 허난설헌, 신사임당..., 아름다운 한국 고전 작품들이 유럽 서쪽 끝에서 온 벽안의 사재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신부님은 일찍부터 한국 문화를 알린 일등 공신이였다.

다행히 오록 신부님의 성실하고 오랜 노고에 합당한 평가도 따랐다. 굵직굵직한 상들과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훈장도 받았으며, 고국 아일랜드에서도 찬사가 뒤따랐다. 오록 신부님은 당신의 번역 활동이 ‘문학의 길’을 따라간 선교사제의 여정이며, 당신 소명임을 받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문학 속에서 인간 본질과 사랑을 찾으려 하는 것이 하느님 말씀에 다가가게 하는 좋은 사목 활동이라는 것이다. 골롬반 성인께서는 일찍이 획일적인 교회 문화에 다양성을 불어넣으려 하셨다. 오록 신부님의 일생은 성인의 가르침을 좇아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그대로 실천한 것임이 틀림없다. 착박한 우리 가슴에 내려앉은 말씀의 씨앗이 오록 신부님의 영시 수업이라는 단비 덕분에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움과 사랑을 알아보게 하는 씨앗으로 틔워 나올 수 있었으니 말이다.

“시를 읽는 이유는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서다. 깨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야말로 이 세상에 깃든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가장 좋은 도구다. 지치지 말고 시 읽기를 계속하라.” 신부님은 늘 이점을 강조하셨다.

이 지면을 통해 그동안 신부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을 소개한다.

강명주 강숙경 권용숙 권은정 김미현 김리혜 김분순 김성민 김수정 김익자 김창선 김혜민 남진희 류지철 박바울리나수녀 박은희 변혜경 서주희 송명섭 심영섭 안정옥 양승주 유인에 이동임 이미령 이



한글 발전 유공자로 문화훈장을 받았을 때(2009년)

미숙 이미영 이선화 이순재 이예슬 이은정 이정화 이지연 이호영 임선희 임순희 장혜진 정성희(세) 정성희(배) 조용주 최선이 최은주 최인 최정운 최화규 함천혜 황미순 허인숙...(가나다순, 이름이 누락된 분도 많다).

신부님은 수업 교재로 시인 밀로즈가 동서양 시를 모아 놓은 시선집 《빛나는 것들의 책》을 자주 쓰셨다. 그리고 빛나는 시의 씨앗들을 흩뿌려 놓고 떠나셨다.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할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남았다. “하느님, 오록 신부님에게 영원한 빛을 내려주소서.”



황 페리 신부님, 벌써 너무나 그리웁습니다

김영우 라이문도

춘천교구 포천성당 출신으로 그곳에서 활동했던 골롬반회 사제들과 어린 시절을 함께하였는데 특별히 황 페리 프란치스코 신부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18대·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故 황 페리 프란치스코 신부(1930.11.24.~2020.11. 9.)

“하루아침에 훌쩍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살짝 데려가셨습니다.”

황 페리 프란치스코 신부님 장례미사를 주례한 제

주교구 강우일 주교 말씀입니다. 평소 무척 조용하고 온화하며 평화로운 분이었는데 선종하실 때도 그러하셨나 봅니다.

황 페리 신부님과 저의 인연은 1975년 경기도 포천성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복사를 썼습니다. 호주 출신 故 조선희 필립보 신부님 때였죠. 이듬해 가을에는 조 신부님 후임으로 황 페리 신부님이 우리 성당에 오셨습니다. 제가 종을 잘못 치거나 물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신부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인상 찌푸리거나 화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면서 잘해야겠구나 마음먹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겨울은 성탄절이 있어서 설레기도 했지만 몹시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산 중턱에 위치한 돌로 지은 성당은 난방시설도 부족했고, 창틀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복사 설 때는 외투를 입을 수 없으니 더 추웠습니다. 고백하건대 미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복사들에게 장갑이며 목도리, 양말 같은 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복사로 간택 받은 것이 자랑스러웠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입학 무렵, 집안 형편이 어려워 참고서를 쉽

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현금이 들어있는 노란 봉투를 건네시며 장학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장학금을 주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추측되는 일이 있긴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일입니다. 학교에 강당이 없어 시내 영화극장을 빌려서 졸업식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대표로 졸업장을 받았고, 교육감 상도 받았습니다. 졸업식에 황 페리 신부님도 오셨는데, 굉장히 뿌듯해하셨습니다. 성당 복사 아이가 상을 받으니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도 더 신이 났습니다. 아마도 신부님께서 중학교 입학 선물을 장학금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아쉽게도 신부님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저도 중3 때 포천을 떠났고, 30여 년 동안 소식이 끊긴 채 신부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8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역구는 고향 포천이었습니다. 포천성당에 다시 나가면서 황 신부님 계신 곳을 수소문하여 마침내 제 주도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우입니다. 라이문도입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포천성당에서 복사를 썼는데요...” “오오... 기억이 납니다. 레이문도, 정말 오랜만인데, 반가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중학생이던 아들과 딸을 데리고 정말 오랜만에 신부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이후 거의 매년 신부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작년, 춘천교구 80주년 개막 미사가 춘천에서 열렸고, 이날 신부님께서 감사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부님을 춘천까지 꼭 모시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을 위해 신부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장갑과 목도리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신부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레몬차와 초콜릿도 준비했습니다. 신부님께서 무척 행복해하셨습니다. 신부님 모시고 춘천 여행을 하던 중 신부님께서 남춘천 묘지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홍천 서석성당 복사였던 분인데 일찍 세상을 떠나 그곳에 묻혀있었습니다. 어렵게 그분 묘를 찾았는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풀이 무성했습니다. 낫을 빌려 신부님과 함께 잡풀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춘천 죽림동성당 묘지와 소양로성당, 순교터도 방문했습니다. 신부님께서 6·25 때 순교한 골롬반 신부님들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신부님과 점심과 저녁도 함께 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신부님께서는 당신 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을 준비해 가셨던 것 같습니다.

11월 9일, 선종 소식을 전해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멍해졌습니다. 더 자주 뵙고, 더 자주 전화 드릴 결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머나먼 호주에서 오셔서 65년 동안 헌신과 사랑으로 살아오신 황 페리 프란치스코 신부님. 생전에는 당신 시신을 연구를 위해 기증 신청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황 페리 신부님, 당신은 저에게 사랑과 희망의 등불이셨습니다. 가난하고 흠뻑 시절, 이 어린 영혼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황 페리 신부와 필자

후원회

문의



CMS 자동이체 신청, 내용 변경, 주소 변경, 우편물 수신을 원치 않는 분은
해당 지역 후원회로 연락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관련 협조 요청

그동안 자체 양식으로 발급한 영수증을 받으셨던 회원 중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요청하시면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등록되면, 회원님께서 빠르고 편리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고,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직접 수령을 요청하신 회원에게는 12월 후원회비 입금 확인 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 영수증을 원하는 회원은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해 주세요.
기존 발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 발급됩니다.

• 홈페이지(www.columban.or.kr) 후원회 게시판

• 서울, 경기, 충청, 강원지역 서울 후원회 ☎ 02-929-2977 | 팩스 : 02-929-1366
이메일 : korseoulfund@columban.or.kr

• 전라, 경상, 제주지역 광주 후원회 ☎ 062-371-5823 | 팩스 : 062-371-5824
이메일 : korkwangjufund@columban.or.kr

후원회 월례미사

2020년 12월 ~
2021년 3월

	12월	1월	2월	3월	장 소	문 의
서울	-	8일	5일	5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인천	8일	12일	9일	9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	-	10일	10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1일	8일	12일	12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	22일	26일	26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	26일	23일	23일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	27일	24일	24일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	28일	25일	25일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	29일	26일	26일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10일	-	-	11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16일	20일	17일	17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	19일	-	16일	서귀 복자 성당	064-733-5523
	15일	-	16일	-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코로나19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미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미사 참석 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 후원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 하안, 목포, 순천, 전주, 광주 12월 미사 없습니다.

원주 12월, 1월 미사 없습니다.

안산 2월 미사(설 연휴)는 날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수납 기관명 : 재단법인 천주교 성골롬반의방선교회

전화번호 : 02-929-2977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성명

세례명

교구 :

(본당)

주소

전화

휴대전화

E-Mail

@

기부금영수증(실기부자로만 발급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록

☐ 우편 요청

☐ 영수증 거부

발급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록해주세요

(

-

)

선교 잡지 (3, 9, 12월 발송) 수신

☐ 원함

☐ 거절

전달 사항

월정액

원

회비납입방법

☐ CMS 자동이체(은행 방문 없이 자동이체 가능)

기타 납입

☐ 온라인 송금 ☐ 지로

※ CMS 자동이체 신청 (아래 모든 항목 기재 및 정보제공에 동의 필수)

출금 은행명

출금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법정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출금일

☐ 5

☐ 10

☐ 15

☐ 20

☐ 25

☐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및 이용 동의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후원 계좌

후원회원 여러분이 바로
선교의 뿌리입니다.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롬반의방선교회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안광훈 신부 대한민국 국적 취득

안광훈 로벨도 신부가 특별 공로로 한국 국적을 받았습니다. 9월 24일,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수여식(사진)을 열고 “55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며, 탄광촌 자립사업, 철거민 권익·구호사업, 복지사업, 주민 자립·공동체사업 등을 펼친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로버트 존 ‘안광훈 신부’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광훈 신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 제공: 법무부

동리춘 베드로 신부 한국 파견

동리춘 베드로 신부가 한국지부로 발령을 받고, 10월 초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본회 설립 100년 만에 탄생한 중국인 최초 골롬반 회원으로 2019년 1월 중국에서 사제품을 받은 동 신부는 “정말 멋진 나라인 한국에 오고, 한국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를 축복하시고, 이곳으로 불러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받으며, 낯선 문화에 적응하느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동 베드로 신부를 환영해 주시고, 기도로서 동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정락 베라노 신학생 첫 서약식

9월 12일, 이정락 베라노 신학생이 첫 서약식을 하고, 본회 유기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날 서약식 미사에는 기림 신부가 증인으로서 함께하였고, 한국지부장 임영준 에이몬 신부가 전통에 따라 십자가를 건넸습니다. 대구 대교구 출신으로 2017년에 입회한 이정락 신학생은 수련기 동안 필리핀에서 ‘영성의 해’를 보낸 후 울여름에 돌아와 첫 서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선교사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골롬반회 신학생들을 기도 중에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축과 회경축을 맞은 본회 사제들

아일랜드 출신 함편익 패트릭 신부(1995년 2월 11일 수품)와 한국인 이찬 빈첸시오 신부(1995년 11월 8일 수품)가 올해 은경축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을 초대할 수 없었지만, 11월 23일 성 골롬반 축일에 골롬반선교센터에서 은경축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사진).

또한,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은퇴 후 고국에서 지내는 네 명의 사제가 회경축을 맞았습니다. 모두 아일랜드 출신으로 1960년 12월 21일에 사제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도착하여 전국 교구로 파견되어 활동했습니다. 서품 희년을 맞은 사제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서품 60주년을 맞은 사제들



전 고르넬리오 신부



오 미카엘 신부



노 마일스 신부



천 패트릭 신부

후원회원을 위한 비대면 방송 미사와 특강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후원회원 여러분을 위한 온라인 방송 미사와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스튜디오’ 또는 ‘골롬반TV’를 입력하면, 양창우 신부가 집전한 후원회 월례미사와 특강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골롬반 선교사들은 후원회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기도와 관심 덕분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여러분을 위하여 항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골롬반TV

축하합니다! 30주년 맞은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



한국지부의 첫 번째 평신도선교사 팀 K1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가 30주년을 맞아 10월 6일, 홍콩 본부에서 총장 팀 몰로이 신부의 주례로 감사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이 미사는 코로나19로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국제 선교 단체답게 다양한 언어와 각자 받은 은총을 서로 나누며, 풍요롭게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1990년 6월, 한국지부가 첫 번째 평신도선교사 팀을 필리핀으로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0년 동안 각 나라 골롬반회는 평신도를 선발하고 양성하여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에 파견하였습니다. 한국지부가 파

견한 15개 팀 60명이 9개국에서 선교했고, 현재는 국내 2명을 포함 9명의 한국인 평신도들이 6개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교 생활 30주년을 맞은 첫 선교사 팀 일원인 장은열 선교사는 필리핀, 미얀마, 홍콩에서 일했고, 현재는 한국으로 파견되어 이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 평신도선교사 코디네이터 노혜인 안나 선교사는 “하느님 사랑을 전하는 축복받은 삶, 교회 안에서 다양성을 지향하는 선교사의 길에 더 많은 젊은이들을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선교지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며,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평신도선교사들을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혜인 선교사가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할 때



서울대교구 상봉동본당 등 회년을 맞은 골롬반회 설립 본당

상봉동본당(주임 강송수 신부)은 10월 25일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설립 5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했습니다(사진). 상봉동은 본당을 설립한 진요한 신부를 비롯하여 아홉 명의 골롬반 선교사들이 사목했던 곳입니다. 이 미사에 본회를 대표하여 기리암 신부와 부지부장 남승원 신부가 함께했습니다. 또한, 서울대교구 도봉동, 상계동, 화양동, 광주대교구 광천동, 제주교구 서귀복자, 춘천교구 운천본당도 올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밖에도 골롬반회와 함께했던 모든 본당의 회년을 같이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사진 제공: 상봉동본당

선종한 골롬반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선교했던 네 분의 사제가 선종하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어려웠던 시절, 한국인들을 위로하며, 이웃이자 사목자로서 하느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선교사의 소명을

완수하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간 사제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 프란치스코 신부
Francis Grady

9월 1일 미국에서 선종(향년 82세). 1938년 미국 출생. 1963년 사제서품. 광주대교구 목포 산정동성당(1969~1970)·목포 연동성당(1971~1972)에서 보좌 신부로 일하였습니다. 한국 선교 기간은 짧았지만, 미국에서 한인 교포 사목을 하며 한국인들과 함께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린 성 요셉 묘원 안장



오 가를로 신부
Charles O'Rourke

11월 6일 선종(향년 90세). 1930년 미국 출생. 1957년 사제서품. 광주대교구 북교동·운암동(설립), 제주교구 한림·신창, 서울대교구 공덕동, 부산교구 반여동(설립) 등 여러 본당에서 사목하였고, 8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 시카고 등에서 한인 교포 공동체를 동반하였습니다. 미국 오마하 벨레루 성 골롬반 묘지 안장



설국진 신부
Salvatore Santo Caputo

11월 16일 선종(향년 71세). 1949년 미국 출생. 1976년 사제서품. 안동교구 영주, 광주대교구 방림동, 제주교구 성산포, 서울대교구 등촌1동·고속터미널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대교구에서 ME 영적지도를 하였습니다. 1999년까지 한국에서 활동하였고, 미국으로 건너가 2011년에 은퇴하였습니다. 미국 뉴욕 홀리 루드 가족 묘원 안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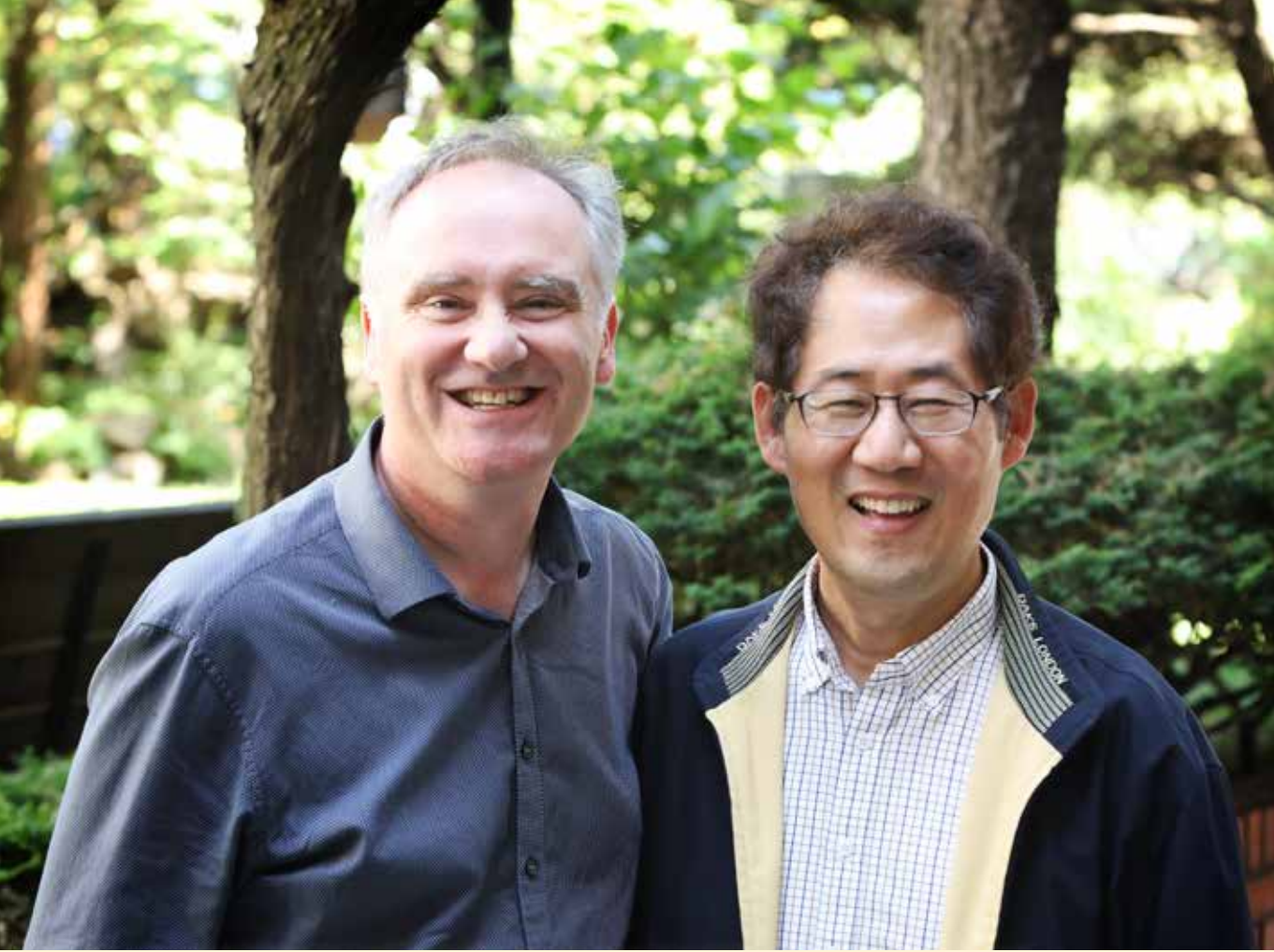
모 안토니오 신부
Anthony Augustine Mortell

11월 20일 선종(향년 85세). 1935년 아일랜드 출생. 1960년 사제서품. 광주대교구 목포 산정동·전남 일로, 제주교구 중앙주교좌 등 여러 본당에서 사목하였고, 광주대교구 매스콤 담당으로 라디오를 통한 선교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1980년부터는 미국에서 한인 교포사목 등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아일랜드 나반 달간파크 성 골롬반 묘원 안장

선종하신 후원회원과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종하신 후원회원을 위하여 기도드리며,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생전에 골롬반회 동반자로서 선교의 삶을 보여 주셨던 분들이 영원한 천상 행복을 누리시기를 소망

하며 기도드립니다. 또한, 병환 중에 계신 후원회원 여러분의 쾌유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의 마음과 삶을 가득 채워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 1항

올해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을 맞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편의 패트릭 신부와 이찬 빈첸시오 신부(왼쪽부터)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최유진 올리벳다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신부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